

## 10 장 그리스도의 본성

안명준 교수<sup>1)</sup>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 4)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 6)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나.”(골 1: 15)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1: 1-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중보자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의 두 구별된 성질**을 가지신 분으로 가르쳐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경건의 위대한 신비인 것이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딤후 3: 16)

### 5.3.1.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 1)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롬 9: 14; 빌 2: 6; 딤후 2: 13)이며,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마 16: 16)이다. 그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계 19: 16)로서 전능하시며(마 28: 18) 전지하시고(요 1: 48) 무소부재하신(마 18: 20) 신적 속성을 지녔으며, 창조(요 1: 3)와 보존(골 1: 17), 죄의 용서(눅 7: 48)와 심판(요 5: 27)의 신적 사역 및 성령을 보내시고(요 15: 26),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요 5: 25)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래 사실로 증명된다.

- \* 구약의 예언 - 구약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타난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사 9: 6), ‘여호와와 해’(렐 23: 5, 6),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단 7: 13), ‘언약의 자자’(말 3: 1, 2) 등으로 표기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 \* 예수의 자의식 -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마 11: 27; 요 17: 1),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셨다(요 5: 18, 21; 12: 44, 45).
- \*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 - 신약 가운데는 마태(마 1: 23; 3: 17), 누가(눅 1: 31, 32, 35), 사도 요한(요 1: 1), 세례 요한(요 1: 34), 베드로(마 16: 16), 도마(20: 28), 그리고 바울(롬 1: 4; 행 9: 19, 20; 골 1: 15; 2: 9)이 예수의 신성을 증언했다.
- \* 예수의 선재성 -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조주 하나님(로고스)**으로 계셨다(요 1: 1; 17: 5, 24; 골 1: 15, 17; 미 5: 2).
- \* 구약에서 임재 - 예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계셨다.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 단 7장 인자(왕).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속에 임재하셨다.

1) 기독교론 자료들

[http://theologia.co.kr/cgi-bin/spboard/board.cgi?id=a4&category=%B1%E2%B5%B6%B7%D0&cate\\_cnt=28](http://theologia.co.kr/cgi-bin/spboard/board.cgi?id=a4&category=%B1%E2%B5%B6%B7%D0&cate_cnt=28)

## 2)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보통 죄인인 우리와 다른 점에 대하여, 성경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무죄한 인간’임을 밝히고 있다. 성령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보호 받으셨다.

### \* 완전한 인성

- ㉠ 인간의 타락 후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며(창 3: 15), 아브라함의 씨로 오며(창 22: 15-18),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며(삼하 7: 12, 13), **동정녀에 의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사 7: 14; 9: 6).
- ㉡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사람(요 8: 40)이라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그렇게 불렸다(행 2: 22; 롬 5: 15; 고전 15: 21). 예수는 스스로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지셨다(요 8: 39, 40).
- ㉢ 신약의 저자들(마 1: 1-17; 눅 3: 23-38)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진숴했다(롬 5: 15; 고전 15: 21; 딤후 2: 5).
- ㉣ 예수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육체(요 1: 14; 딤후 3: 16; 요일 4: 2, 3)와 영혼을 가지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마 27: 50; 눅 23: 46).
- ㉤ 예수는 보통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눅 2: 40, 52; 히 5: 8).
- ㉥ 예수는 인간이 가지는 배고픔(마 4: 2)과 피곤함(마 8: 24)과 히로애락의 감정(막 3: 5; 요 11: 35; 눅 22: 44)을 가지셨다.
- ㉦ 예수는 인간적인 제약을 받으셨다(마 24: 36; 눅 7: 9).

### \* 무죄한 인성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罪性)**은 가지지 않으셨다. 이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 ㉠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출생하였으므로 인간의 유전적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눅 1: 35).
- ㉡ 죄의식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책잡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서 죄 사함과 중생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나(눅 23: 34; 요 3: 3, 5)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셨다.

\* 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 5.3.2. 그리스도의 이성의 필요성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 28)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요 6: 51)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고후 5: 18)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

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 21)

그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자는 신인(神人)으로 하나님도 되시며 인간도 되셔야 한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으신 분으로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성의 필요성은 첫째로 무한한 가치의 **완전한 희생**을 드릴 수 있기 위하여,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속죄적으로 부담할 수 있기 위하여 곧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구속 사역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 참된 인간이자 참된 하나님이어야 하였던 것이다(시 49: 7-10; 130: 3).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격성(一人格性) -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인격, 즉 한 분이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1문답,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성, nature)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십니다.” 인격(person)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행동 주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지성의(知情意)의 특질 자체는 인격에 속한다기보다 성(nature)에 속한다고 본다.

### 5.3.3.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 1) 칼세돈 신조

칼세돈 공의회(451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모두가 일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동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고백하게 한다. 그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본질이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세대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을 따라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Deotokos)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님이시요, 독생하신 자는, 양성(兩性)에 있어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음을 인정받으며,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재로 작용한다. 그는 두 인격으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며,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처음부터 선언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으며, 거룩한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이다.

중요 내용: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는 두 가지 성질(nature)로

인식되는 바 혼돈 없이(without confusion), 변화 없이(without change), 구분 없이(without division), 분리 없이(without separation) 계신 분이며, 성질들의 차이는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각 성질의 특징들은 보존되고, 한 인격과 생존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오며,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뉘짐 없이 한 분 같은 성자요 독생자이시며, 말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심지어 가장 최초의 예언자도 그에 관하여 말씀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로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2) 그리스도 인격의 통일성

### (1) 한 인격 안에 이성이 있다는 교리의 진술

중보자에게는 한 인격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아들인 것이다. 성육신 안에서 그는 인간의 인격으로 변한 것도 아니요, 인간의 인격을 채용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는 인성을 취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 인성은 독립된 인격으로 발전하지 않고 신자(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인격적인 것으로 되었다. 영원 전부터 신성을 소유하시는 한 신적 인격은 인성을 취하였으며 현재는 이성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

그리스도 안에 이중인격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한 인격이었다. (요 17: 23)

### (3) 한 인격에 있어서의 이성 연합의 결과

신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육신에 있어서도 하등의 본질적인 변화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성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전달(교차적으로 나타남)이 있게 되었다.

첫째로, ‘속성의 전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들과 인적 속성들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교차적으로 나타남)**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속성도 인적 속성도 함께 가지시는 **신인적(神人的) 존재**가 되신다. 그 인격은 전지, 전능, 편재 등으로 불리는가 하면 비애의 사람, 제한된 지식의 사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둘째는, ‘행동의 전달’(사역의 전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들과 인적 사역들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할할 수 없는 **인격적 주체의 사역**이다. **신인적(神人的) 성격**을 가진다. 마가복음 2장 10절,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으로서 인자이시다.

셋째는, ‘은혜의 전달’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은혜와 영광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됨을 의미한다. 신적 은혜와 영광이 전달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존귀케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인성을 가지셨지만 오늘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sup>2)</sup>

## 그리스도의 신분— 종(비하)과 주님(부활과 승귀)

우리는 가끔 “신분”과 “상태”라는 말을 상호 교차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율법과 율법 앞에 선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특수한 의미로 “신분”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종이였으나 높아지셨을 때는 율법을 초월한 주님이시다. 자연히 이 두 가지 신분은 생명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동반하게 되며 이들은 몇 가지 단계로 언급된다.

### 5.4.1. 비하 신분

낮아지신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의 것이었던 신적 위엄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으며 최고의 율법 수여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아래 굴복하게 되셨다는 데 있다(마 3: 15; 갈 3: 13; 4: 4; 빌 2: 6-8). 그리스도의 이 신분은 그에 상응하는 상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흔히 다음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 1)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육신이 되셨다(요 1: 14; 요일 4: 2).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써 인류 종의 한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재세례파의 주장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그의 인간성을 부여받으셨다면 성육신은 참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가르쳐 준다(사 7: 14; 마 1: 20; 눅 1: 34, 35). 그의 출생은 시초부터 죄의 오염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호해 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눅 1: 35)에 의한 것이었다.

#### 2) 그리스도의 수난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의 수난이 그의 최후적 고통에만 국한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전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었다. 그의 생활은 만주의 주가 종이 되신 생활이었으며 죄로 저주 받은 세상에서 무죄한 자의 생활이었다. 사단은 그를 공격했고 그의 백성은 그를 배반했으며 그의 대적들이 그를 괴롭혔다. 영혼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보다 더 격렬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에 의해 유혹받으셨고, 자기 주위의 불의한 세상에 의해 억압을 받으셨고, 자기에게 지워진 죄 짐에 의해 눌림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셨다(사 53: 3).

#### 3)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말할 때 자연히 그의 육체적 죽음을 생각한다. 그는 어떤 불의한 사건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며 어떤 암살자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의해 죽으신 것이며 죄인으로 간주되셨던 것이다(사 53: 12). 그는 로마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된 죽음을 죽으셨던 것이다(신 21: 23; 갈 3: 13).

#### 4) 그리스도의 장사(葬事) 지냄

---

2) <http://irt.kr/D/39.htm>.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그의 고난의 최후 단계이었던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지 아니했던가? 그러나 이 말은 아마도 그의 능동적 고난을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그의 **장례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인식했던 바 낮아지심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인생이 흠으로 돌아감은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이다(창 3: 19). 다음의 성구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원자가 무덤에 머무심은 하나의 낮아지신 신분이다**(시 16: 10; 행 2: 27, 31; 13: 34, 35). 이는 우리에게서 무덤에 대한 공포를 제거해 준다.

#### 5) 지옥(地獄)에 내려가심

사도신경에 있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시고”(descendit ad inferna)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우리나라에서는 빠져있음). 로마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구약 성도들을 해방하기 위해 그들이 갇혀있는 선조 림보(*limbus Patrum*, borderland of the patriarchs)<sup>3)</sup>에 내려가셨다고 말하며,<sup>4)</sup>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 기간에 흑암의 권세에 대한 그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념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본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 상징적 표현이 될 것이다. ① 그는 동산에서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② 그는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낮아지신 상태에 들어가셨다(시 16: 8-10; 엡 4: 9).

#### 5.4.2. 승귀의 신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마 26: 64)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막 16: 19)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눅 22: 69)

높아지심의 신분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의와 영생을 준비하시므로 계약적 의무인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시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훌륭한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을 쓰시게 되었다**. 여기에는 네 단계로 구분되어야 한다.

#### 1) 부활

3) a place reserved for Old Testament believers before Christ's coming.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의 족장들이 기다리던 지옥과 연옥의 경계 지점의 장소.

4)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늘(천국, heaven)에 갈 만한 완벽한 성인(聖人)은 극히 적다고 한다. 그래서 죽은 후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자들(?)이 일정 기간 다른 곳에서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연옥이다. 이렇게 연옥에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비로소 ‘하늘(천국, heaven)’에 가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연옥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다. ‘선조 림보’(Limbus Patrum)다. 이 림보는 지옥의 양쪽 가장자리(limbus)에 있는 곳으로 구약시대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계시의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라고 한다. 구약시대의 사람들 역시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들이 바로 천국(하늘)에 가지 못하고 대신 ‘림보’로 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선조 림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가신 ‘음부’라고 생각한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선조 림보’에 가서서 그가 십자가에 이룬 구속의 공로로 구약의 성도들을 풀어 해방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heaven)로 가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사도신경 번역에는 ‘저승에 가시어’라고 되어 있다. 개혁신앙, “음부강하에 대한 개혁파 교회의 입장”, <http://www.thetruthlighthouse.org/> 음부강하에-대한-개혁파-교회의-입장/.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눅 24: 46)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케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 3)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 12)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 4)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단순한 재결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인간성, 즉 육체와 영혼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회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 이전에 부활한 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다(고전 15: 44, 45).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고전 15: 20)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골 1: 18; 계 1: 5)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3가지 의미를 갖는다.

- 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셨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었다(빌 2: 9).
- ②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을 상징하신 것이다(롬 6: 4, 5, 9; 고전 6: 14; 15: 20-22).
- ③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롬 4: 25; 5: 10; 엡 1: 20; 빌 3: 10; 벧전 1: 3).

## 2) 승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막 16: 19)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눅 24: 50-51)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 9)

승천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필연적 완성이었으나, 승천도 독자적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50-53절과 사도행전 1장 6-11절에서 이에 대한 이중적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과 4장 8-1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였고, 히브리서도 승천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히 1: 3; 4: 14; 6: 20; 9: 24). 승천은 지상에서 하늘로,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른 증보자의 유형적인 상승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현저한 영화를 내포한 것이다.

루터파는 승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는다. 그들은 승천을 하나의 조건의 변화라고 보며 그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신적 속성의 완전한 기쁨에 들어가셔서 **영구히 편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그의 희생을 성부께 나타내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 보좌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롬 8: 34; 히 4: 14; 6: 20; 9: 24). 그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이다(요 14: 1-3). 우리는 이미 그와 더불어 하늘 처소에 거하게 되었고 그의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엡 2: 6; 요 17: 24).

### 3)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 34)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대.”(행 7: 55-56)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엡 1: 20; 히 10: 12; 벧전 3: 22). 당연히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취급될 수 없으나 권능과 영광의 처소를 말하는 상징적 지시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의 완전한 희생에 근거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중재의 역할**을 하신다.

### 4) 육체적 유형적 오심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 9-11)

“볼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 7)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최절정에 달하게 된다. 분명히 그의 **재림은 육체적이고 유형적**이 될 것이다(행 1: 11; 계 1: 7).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요 5: 22, 27; 행 10: 42; 롬 2: 16; 고후 5: 10; 딤후 4: 1).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목적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실** 목적으로 오실 것이다. 재림은 그의 **구속 사역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고전 4: 5; 빌 3: 20; 골 3: 4; 살전 4: 13-17; 살후 1: 7-10; 2: 1-12; 딤후 2: 13; 계 1: 7).